



할머니 집에 살아요

글 · 그림 안성하 / 책고래



서로가 어색하고 서툰 1학년 아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나누는 이야기

엄마 아빠와 떨어져 할머니 집에 살게 된 설아와 동생 이야기입니다. 할머니 집에는 다른 사촌들이 많았어요. 설아와 동생은 웬지 주눅이 들었지요. 하지만 주춤거리는 것도 잠시, 설아는 할머니 집에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. 바로 ‘빨라야 한다’는 것이예요. 느릿느릿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, 비 오는 날 다 헤진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가야 할지도 몰라요. 설아는 전전긍긍하며 ‘할머니 집에 사는 법’을 터득해 나갑니다.

저마다 사연을 간직한 채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머무릅니다. 하지만 《할머니 집에 살아요》속 아이들 에게는 그늘이 없습니다. 평범한 또래 아이들처럼 와글와글 소란스럽게 떠들고, 욕심도 많은 데다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들이지요. 누구 하나 풀 죽어 있지 않아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? 가만히 책장을 넘기다 보면 늘 묵묵히 아이들 뒤를 살피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. 무뚝뚝하고 어딘가 험상궂은 인상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할머니가 엄마 아빠 못지않게 악동들을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. 일곱이나 되는 손주들을 넘침도, 모자람도 없이 골고루 챙겼지요. 그 덕분에 아이들은 당차고 건강하게 할머니 집에서 살아갑니다.

독후 이해 활동

❶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아요.



Q 그림을 엮어 오늘의 일기를 써 보아요. 느낌도 자세히 써 보아요.



년	월	일	날씨:
제목:			

독후활동 이어가기

Q 나는야 마법사! 지금 할머니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마법사가 되어 만들어 보아요.

Q 생각아 솟아라 압! 찢어진 우산 때문에 눈치를 보는 나와 사촌들. 찢어진 우산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보아요.

